

# “전주시 용역사업 전면 재검토를”

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이 전주시가 슬로시티 재지정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슬로시티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오정화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오 의원은 또 “전주시가 슬로시티 재지정 성과를 거뒀지만 슬로시티에 걸맞는 정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전주시민들은 정작 전주시가 ‘슬로시티’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슬로시티 제정을 위한 서류만 있을 뿐 앞으로 계획은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 슬로시티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종합관광발전계획 용역 수립기관에서 조사한 결

과,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재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숙박시설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부진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젊은 층이 주를 이루며 학생들의 수학여행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저렴한 숙박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을 감안할 때 유스호스텔 등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연간 10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 상점 간판에 한글을 사

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전주시에 한옥마을 한글 간판 사용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서울시 세종로 일대에서 한글 상호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전주시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글간판 사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옥마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도 큰 문제”라며 “공공기관부터 슬선수범에 나서 아름다운 한옥마을의 풍광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전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과 공원 주변 환경 보전 등 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나선다.

전주시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 시 건축물을 완화하고 개발행위가 기준에서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며 이 중 임상 산정방식을 임목본수도에서 임목축적으로 변경한다.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 증축시 건축물을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고 경관 보호와 농지의 보전을 위해 고물상,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발전시설은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 경지정리지역 및 공원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또 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은 불허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공업지역 내 용역물을 전용공업지역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300% 이하에서 350% 이하, 준공업지역은 3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완화된다.

시는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개정조례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로, 12월 시의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 활성화 간담회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는 24일 삼천2동 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간부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과 공동체 활성화를

## 전주시, U-20월드컵 대비 수송대책 마련

내년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관람객 편의·이미지 제고

내년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에 대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방안이 마련된다. 전주시는 내년 3월까지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수요와 특별노선 운영, 자가용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 마련 및 홍보 등 U-20월드컵 대비 수송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

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주에서는 U-20월드컵의 개막전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2~4경기 등 총 9게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람객들의 편의와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완벽한 수송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먼저 시는 올 한해 전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의 K-리그 경기관람 편의를 위해 운영했던 전북현대 주말 홈경기 특별노선(1904번 버스)의 운행결과 등을 토대로 전주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 특별노선 운행여부와 운행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초로 예정된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맞춰 월드컵경기장으로 향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외에도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임시주차장과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 방법 등도 결정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 검찰, 익산 약혼오거리 사건 상고 않기로 결정

익산 약혼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사건 무죄선고와 관련 전주시 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산지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 및 최근 수사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 재판을 통해 실제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혼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에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혼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에 찔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최모씨(32)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최씨에 대한 재심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서해 먼 바다 조업 중인 어선서 실종자 발생

해상에서 조업 중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실종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인식)는 24일 오전 5시50분께 군산시 여흥도 남서쪽 118km 해상에서 29톤급 유자망 어선(목포선적, 승선원12명) 선원 장모(55, 전남 영광)씨가 실종돼 수색에 나섰다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실종 선원 장씨는 조업을 위해 그물을 내리다 그물 줄에 걸려 바다에 추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표류예측시스

템을 기동하고 3000톤급 경비함 등 경비함정 2척을 현지로 급파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인근 조업어선 5척도 수색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이 초속 14~15m로 불고 파도가 3m 내외로 높게 일고 있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선장 및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 이임

전주시는 24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동료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의 이임식이 열렸다.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 4개월여 시간을 함께해 준 모든 전주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국외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조 부시장은 지난 2014년 8월 제46대 전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부시장 재임시 대한축구협회와 중앙부처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2017 U-20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일조하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힘써왔다. 명품 한옥마을 조성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조 부시장은 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에 주력하기도 했다. 조봉업 부시장은 이임사에서 “지역 문화지수 전국 1위의 전주는 21세기 선진도시로 성장할 만한 높은 가능성과 자력을 가진 도시다”라며 “관광과 산업의 불모지를 개척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전주로 키워낸 것처럼, 전주의 내일은 분명 더욱 밝고 따뜻해지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재 기자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진안홍삼

진안군수 품질인증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